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1월 28일 (제1238호)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땅을 깊이 파라

‘못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내가 자주 던지는 질문이다.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못해서’가 아니라 ‘안해서’다. 더욱이는 ‘끝까지 안해서’이다. 꿈과 이상은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인내’라는 대가를 요한다. ‘꾸준히’, ‘기필코 정신’을 요구한다. 문제는 인스턴트 시대를 사는 요즘 아이들이 그게 잘 안된다는 것이다. 조금 해보고 ‘안되네.’ 하고 돌아서고 포기한다. 땅을 조금 파도 물이 나오긴 한다. 건수(乾水)다. 그러나 건수는 땅속 얇은 곳에 있어서 수맥과 연결되지 않아 가뭄에 쉽게 증발해버린다. 반면, 생수(生水)는 땅속 깊은 수맥에 연결되어 있어 가뭄에도 끊임없이 솟아난다. 살면서 늘 갈증을 느끼는 것은, 인생이란 샘에서 평평 물이 솟구치지 않는 것은 땅을 깊이 파지 않아서다. 그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우물을 파니까 가뭄이 오면, 조금 힘든 일이 오고 조금 어려움이 오면, 물이 말라버려 인생이 타들어가는 것이다. ‘열두 채주 가진 놈, 끼니가 없다’는 말이 바로 예증 아니겠나.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참 멋지다.’고 한다. 해외도 자주 나가고, 나가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계, 재계, 학계의 인물들이 만나 달라고 줄 서고, 뭐든 부족함이 없어서 참 좋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거 아는가? 이 생수를 끌어오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땅을 팠는지? 남들이 비웃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돌을 던져도 나는 그저 땅을 팠다. 물이 금방 나오면 좋으련만... 그때 사람들이 유혹했다. 다른 우물을 파라고, 여기 말고 저쪽 땅이 좋다고. 그러나 나는 남들이 미련하다 해도 그저 묵묵히 땅을 팠다. 15년쯤 꾸준히 땅을 파니 드디어 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솟구쳤다. 그래서 지금은 그 물로 우리 교회뿐 아니라 74개국의 성도들까지 넉넉하게 마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을 깊이 파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5:3~4)라는 말씀을 이루어 소망에 거하길 원하신다. 꾸준히, 깊이 땅을 파면 생수는 터진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큰 고기를 잡으려면 대양(大洋)으로 나가라. 큰 생각이 큰 작품을 만든다. 그런데 뜻을 정하고 결단하면 반드시 유혹이란 불청객이 찾아온다.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곧 가까이에 있다.”고 강조하셨다. “연안부두에 머물러서는 결코 큰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큰 고기는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며 다닙니다. 그래서 큰 고기를 잡으려면 큰 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는 부두에 정박해놓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큰 바다로 나가 크고 많은 고기를 잡고, 전 세계로 수출하는 꿈을 위해 만든 겁니다. 우리 인생도 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개미도 천리마에 올라타면 천 리를 갈 수 있고, 파리가 독수리에 올라타면 창공을

양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렘6:19). 큰 그림을 그리려면 큰 캔버스를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릇이 커야 하지 않습니까? 종제기를 갖다 놓고 어찌자는 겁니까? 입을 크게 벌리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81:10).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쏟아부어 주시려 하는데 꿈을 꾸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침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지겠습니까? 제발 큰 꿈을 꾸세요. 큰 생각을 가지세요. 그런데 오늘 내가 드리려는 말씀은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결단하면 반드시 유혹이란 불청객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원수가 집 안에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

아담을 유혹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신 아내 하와였지 않습니까? 요셉을 팔아먹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니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남에게 맡겼다가 사고 나는 법입니다. 그때 가서 물어보아, 후회해봐야 다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눈 같은 형제라도, 손발 같은 친구라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매사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풍년 후 7년 대흉작의 위기 앞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로 애굽을 최대 부국으로 올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일예배 광경 (KBS 아레나홀)

날 듯이, 우리도 예수께 붙어있으면,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있으면 세계를 복음화하는 대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꿈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꿈을 버렸고, 우리가 희망을 버렸고, 우리가 믿음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갔기에 말라비틀어져 인생에 되는 꼬라지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결과라고 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

리라’(마10:36). 내가 뜻을 정하고 결단하면 가까운 사람이,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친구가 유혹합니다. ‘뭘 꼭 그리 어렵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하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 방법을 찾도록 유혹한다 이겁니다. 앞길이 막혀있어 하나님께 날마다 막힌 것을 뚫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슬며시 찾아가 ‘답답하구먼. 옆으로 돌아가면 간단한 것을~~’하며 기도를 막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려는 뜻과 결단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정말 내 앞길을 막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슴을 쫓는 자는 결코 토끼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큰 생각과 결단으로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데 반드시 작은 유혹들이 여러분을 흔들어댈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보겠다는 꿈을 안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 하면 크고 작은 일들이 나타나 여러분을 휘방하고, 유혹하며 흔들어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가는 길에 마지막 넘어야 할 산이라 생각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은택 목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를 기입해주세요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사39:1~6)

숨길 것은 숨기는 것이 지혜다

곰에게서 쓸개즙을 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입에 달콤한 사탕을 물리고 빨대를 꽂아 쓸개즙을 빼냅니다. 곰은 달달한 사탕 먹느라 아무것도 모르지요. 사기꾼이 당신의 재산을 도적질할 때 딱 이렇게 합니다. 달콤한 말, 혹하는 말, 곧 아침하는 말로 알랑거려 당신이 달콤함에 푹 빠져 있을 때 빼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대표이사가 되셔야죠.”, “투자하시면 열 배는 금방 거둡니다.” 등등... 성경은 그런 자들을 일컬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침하나이다” (시5:9).

여러분, 아침(阿諛)이란 환심 아(阿), 속일 침(諛)입니다. 환심을 사서 속이려고 하는 사기꾼의 작태이지요. 이 아침은 곰에게 준 사탕처럼 달콤합니다. 듣기 좋은 말, 평소 듣고 싶었던 말, 한 번쯤 받고 싶었던 대우, 처음 받아보는 대우로 정신을 속 빼앗아 판단 능력을 마비시킨 후 쓸개즙 빼가듯 당신의 것을 다 빼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웃에게 아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잠29:5).

그들이 왜 아침할까요? 빼낼 게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아는 놈이 도둑질한다’는 것ですよ. 그들은 당신에게 퇴직금이 있다는 걸 알고 텀비는 겁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땅을 판 것을 알고 알랑거리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분명 당신 입으로 말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어느 자리에선가 퇴직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지나가는 말이라도 땅 팔았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마귀도 일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억울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이 집사님이 목이 좋은 장사터를 알아냈는데, 그걸 가장 친한 집사에게 얘기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보증금을 구하는 사이에 친구 집사가 그만 먼저 가서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이 일로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집사님, 왜 일이 성사도 되지 않았는데 자랑을 합니까? 그런 건 누설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친해도 말해야 할 것이 있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입단속을 잘하십시오. 집사님이 깨달았으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마13:44).

우연히 엄청난 보화가 숨겨진 밭을 발견했다면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아무 일 없는 듯 조용히 그 밭을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잠25:2). 이것이 사기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그러나 어디 사람이

이

그

런

가

요?

대

개

자랑하

지요.

히스기야

는 곧 죽으리라는 이사

야 선지자의 말에 대성통곡하며 기

도하여 병이 낫고 수명을 15년이나 연장

받았습니다. 이 소문이 멀리 바벨론까지

났습니다. 그러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므로닥발라단이 축하 메시지와 예물

을 사신을 통해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참 기쁘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분

명 므로닥발라단이 보낸 글은 히스기야

가 감동할 만한 글이었을 테고, 히스기야

가 혹할 만큼의 예물이었을 겁니다. 그들

은 속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

분이 붕붕 뜬 히스기야는 그것도 모르고

급기야 그들 사자에게 군기고와 내탕고

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를 알고 어디까지 보

여줬느냐고 물으니 히스기야가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

이다”(사39:4)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이

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

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사39:6).

요셉은 안 해도 될 고생을 사서 한 셈입니다. 그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조용히 간직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요셉은 곧바로 형제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잖아도 아버지의 총애를 듬뿍 받는 요셉이 미워죽겠는데 꿈 이야기까지 하니 형제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창37:8).

명견은 아무 때가 짓지 않고, 주인이 주는 음식 외에는 먹지 않습니다.

다. 그러나 똥개는 아무거나 먹고, 아무 때나 찾아대지요. 지혜로운

자는 안 할 말은 안 하고, 받지 말아야 할 뇌물에는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내와 한 마디도 의논하지 않았습니 다.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만 아내에게 괴로운 심정도 토로하지 않았습니 다. 만일 아내인 사라에게 조금이라도 언급했더라면 아브라함은 절대 그 큰일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아내 사라가 “당신 미쳤소?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우리가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그 아들을 드리냐?”며 난리를 쳤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품삯 대신 앞으로 낳을 열목덜룩한 양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발설하지 않고 조용히 실행에 옮겨 거부가 되었습니다(창30).

하나님도 말씀 안 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

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24:36).

맞습니다. 정말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합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10:16).

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빠가 있으나 빠가 없는 듯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속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일을 이룬 사람들은 대체로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칭찬과 아침은 다르다
아침에는 독이 있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동업을 하든, 교회에서 직분을 주든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자고로 사기 치는 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으로 포장합니다. 산에서 먹음직한 버섯은 다 독버섯이란 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는 ‘믿음’을 타고 들어오는 사기꾼이 많았습니다. 제가 돈이 있다는 소문이 도니까 신앙이 어찌느니, 믿음이 어찌느니 하며 접근해서 돈을 많이 뜯어갔습니 다. 제가 지식이 없었지요. 지금은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찾아와 ‘고위직을 안다. 교회 짓는데 돕겠다.’ 하면 “그러나? 행정목사! 누구에게 전화해서 이런 사람 아는지 전화해봐.” 그러니 다. 그러면 바로 줄행랑을 칩니다.

검증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둘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 안전한 겁니다. 문별이나 학별, 배경만 보고 혹하면 안 됩니다. 금은 문질러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고, 다이아몬드는 망치로 때려보면 알고, 씨앗은 물에 담가놓아 속이 실한지 썩었는지 압니다. 사람은요? 오래오래 살펴야 합니다. 제가 목회 40년 가까이 외치는 것이 바로 ‘점검부재현상은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 아닙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합니까. 부디 무엇이든 서두르지 말고, 조금하지 말고 천천히 검증한 후에 합시다.

2024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겠다 걱정하면 마귀도 걱정하고 텀빕니다. 달콤한 말로, 부추기는 말로, 그럴싸한 것으로 다가와 곰의 쓸개즙을 빼듯 당신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습니다. 부디 아침에 주의하고, 기도로 성령충만하여 영분별합시다. 그래서 평생 공들인 탐이 무너지지 않게 합시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ETF)

지난 2024년 1월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는 세계 최대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블랙록(BLACKROCK)을 포함한 11개의 자산 운용사들이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지수투자 펀드(이하 B-ETF)에 대한 등록신청서를 모두 승인했다고 발표하였고 이튿날부터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이하 위원장)氏は, 이번 승인 건은 미국 최대 암호화폐(가상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 측이 제소에서 패소한 것에 근거하며, SEC는 법원의 판결을 엄격히 존중하기 때문에 B-ETF에 대한 거래를 승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미국 공중파인 CNBC와의 대담에 출연하여 SEC의 입장은 B-ETF에 대한 거래를 승인하는 것이지 기초상품인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도 않고 보장하지도 않으며, 비트코인은 가격변동에 대해 큰 변동 폭을 갖고 있어 손실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 해킹, 자금세탁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품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BLACKROCK 자산 운용사의 CEO 래리 핑크 氏는 비트코인이 통화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할수록 효율적인 가치의 저장 및 이동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고, 이는 실물 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

장은 채권과 같이 고정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이 ETF로 진화하고, 결국 ETF는 토대 큰 상품으로 귀결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기술적 혁신을 선도하기 위하여 자신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관계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와 국내 자산 운용사가 상품을 구성하여 판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대하여 업계의 전문가, 정치인 및 이해관계자들은 국내 소비자들의 투자 기회를 차단할 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의 주도권마저 내주게 되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대중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은행을 통하여 투자상품을 취득한 소비자들은 자신의 판단 하에 투자를 하고도 손실이 발생하면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하거나 대중매체를 통하여 감성팔이를 하여 국가나 판매사로부터 손실을 보전받고자 하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계 당국이 참여를 허용한다면 경험이 축적된 소수의 기관투자자 로만 한정하고 일반 개인이나 법인에게는 판매는 물론 권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늘 자신이 아는 것에만 집중하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지난 40년간 강조하여 오셨습니다.

임윤석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왜! 귀신을 쫓아야 하나?

몇주 전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강의실에서 강의를 시작하려는 제 앞에 난데없이 두 명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교탁 옆에 놓인 피아노를 멋대로 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녀를 중단시키기 위해 ‘어머나, 피아노를 정말 잘 치시네요! 곧 강의를 시작해야 하니 끝나고 연주해주시겠어요?’라고 부탁했으나 들은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고향을 내지르며 이유 없는 생떼를 부리는데, 눈물로 애원하며 말려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더욱이 그 자리에는 타 교인 분이 많이 참석하였는데, 그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끝끝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 순식간에 두 여자는 잠잠해졌고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나는 과연 안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의 원인이 바로 ‘귀신’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귀신을 쫓는가?’

귀신이 요동하는 것으로 생각지 못하고 갖은 말로 회유하려 했던 나의 모습. 사람들의 시선에 주눅 들어 귀신을 즉시 내쫓지 못한 모습이 떠오르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총회장 목사님께 꿈을 말씀드렸고, 마가복음 한 구절을 받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어찌하지 못하고 예수께 데리고 와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여쭙었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지요.

‘아, 내가 실패 없는 총을 가지고 있었구나!’ 기도로 실패를 장전하여 악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며 땀에 빠질세라 꿈으로 교훈하심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는 자가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잊지 맙시다! 늘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막16:17).

김진실 사모

:: 찬양과 경배 ::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최근에 한 장례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며 집안에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굳건히 서 계시던 권사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돌아가신 아름다운 장례인지라 가족들도 평안해보였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까지 마쳤을 때, 함께 하였던 한 권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너무나 평온한, 하지만 확신에 가득 찬 그 말이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이생뿐이라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도 이야기하죠(고전15:19).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미쳤다고 할 만큼, 우리 생각을 버리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보다 우리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 그 노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상과 집을 주인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유혹하고, 미혹해도 그 길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앞서가며 본을 보이신 예수님과 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길 소망합니다(히12:1~2).

우리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모두 사랑하는 주님을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그 날을 고대합니다. 할렐루야!

윤예녹 생도



:: 생명의 말씀 ::

복음이 되는 삶

어느 젊은 사업가를 알게 되었다. 구도심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객을 확보하다가 신도시로 이전했음에도 그 고객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옮겨온 대단한 사업가다. 자기 일에서의 지식도 깊고, 경험도 많이 축적했고, 언어와 품위도 늘 좋아 보였다. 알고 보니 타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였다. 성품 교육이 참 잘 되었다 싶어 물었더니, 조부모님께서 목회자이시면서 늘 가정교육에 엄격한 분이셨다고 했다. 젊지만 노는 일보다 미래를 위해 자기 분야를 늘 치열하게 연구하고 신앙으로 절제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단순히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개개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려는 노력에 적잖이 감동을 받았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자기 영역에서 충분히 복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복음이란 낮아지는 것이다. 말씀이 성육신 되셨을 때, 말씀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담는 그릇을 인간의 몸으로 취하신 것일 뿐이다.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예수님

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가 백성들의 필요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기에 늘 기적과 은혜가 동반되는 삶이셨다. 고객의 필요와 무관한 개인의 정치적 야욕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의 비참한 에피소드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객의 필요조건을 다 취해보셨기에 너무도 잘 아시고 치유하시는 감동을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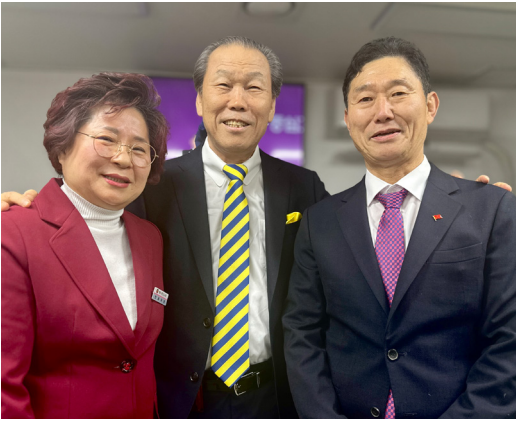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늘 명품인생을 강조하신다. 처음엔 마음에 잘 와닿지 않던 언어였으나 그 명품인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으며, 또한 총회장 목사님의 변함없는 삶을 보며 명품인생을 배운다. 목회의 가장 중심축을 이루는 목회 철학이 누가복음 16장 10절이심을 봐도 알 수 있다. 얼마 전 어떤 질문에 답을 해주셨다.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나 자신이 희생하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나를 위한 삶에서, 복음으로 이웃을 살리는 쪽으로 점점 나아갈 때 더 잘사는 인생이다. 복음이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잠재적으로 주셨음을, 성육신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다짐해본다.

송직화 목사

:: 성도간증 ::

:: 빛이 되리라 ::

모든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옥수동에서 피부샵을 운영하는 전 경오 집사, 김순자 권사입니다.

지난 한과가 물려왔던 12월 24일, 이날은 주일예배가 인천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부터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창문을 열어보니 눈이 너무 쌓여 서울에서 인천교회에까지 갈 자신이 서질 않아 기도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쉬려간다고 집으로 올라가고, 저는 예약 손님이 있어 관리를 막 끝내는데, 남편 번호로 벨이 울리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순간 숨을 헐떡이며 짧은 외마디, ‘빨리빨리’를 간신히 외치며 통화가 끊겼습니다.

다행히도 사업장과 안집은 같은 건물이어서 재빠르게 4층으로 올라가 남편의 상태를 보니 얼굴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있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기에 119를 부르고 온 전신을 마사지하듯 순환을 시켰습니다.

거실에 쓰러져 있었기에 남편이 화장실에서부터 피를 쏟은 것을 몰랐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남편의 상태는 심각했고, 혈압이 너무 낮고, 항문으로 계속 피를 쏟아 무서웠습니다.

교구 전도사님을 통하여 목사님께 보고되었음을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상황이 너무도 급박했기에 당황하고 긴장하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 담임목사님, 교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교대로 전화를 주셔서 기도해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격려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총회장 목사님께서 “김순자 권사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안 돌아가셨다. 네가 충성할 때 너희 남편을 살려서 보내주실 거야. 너는 과부로 살 팔자가 아니야.”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아~~,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 하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였습니다.

이틀 후, 연휴이어서 못했던 MRI, 대장내시경, 위 내시경검사를 새벽부터 진행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경 담당 교수님께서 병실에 오셔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이 “그러면 피를 쏟았던 원인과 위치는 어디입니까?” 물으니 피를 쏟은 흔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장내 출혈이 너무 심하여 의식을 잃었다고 했는데 흔적이 없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했을 때, 문득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며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다짐했습니다. 건강이 허락되는 날까지 더욱더 열심히 심고, 섬기고 충성하다가 천국 가겠다고요. 저희 부부의 좌우명은 ‘심고, 섬기고, 열심히 충성하다가 천국 가자!’ 입니다.

이번 일로 기도해주신 총회장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성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김순자 권사

제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시중은행에 취업하여 올해 23년째 다니고 있는 성도입니다. 저는 은행 본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2023년 1월에 여의도의 한 근무처 팀장으로 발령받았는데, 그 자리는 업무 강도가 낮아 직원들이 서로 가고 싶어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자리가 ‘독이 든 성배’였는데, 그 이유는 편한 만큼 인사평가를 잘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사평가를 낮게 받으면 지점장 승진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탈락하게 될 것이기에, 비록 몸은 편하다 할지라도 마음은 불편한 하루하루가 지속되었습니다.

어느 회사나 비슷하겠지만, 우리 회사도 직원들의 승진 경쟁이 치열합니다. 승진을 위해 각종 로비와 중상모략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점장 승진에 최소 5천만 원의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저를 아끼는 회사 선배들은 ‘지금은 비록 너의 연차가 낮고 나이가 어려 승진하기엔 이르지만, 이 자리에 계속 있다가는 나중에 승진 못할 수도 있으니, 윗사람들에게 명품을 선물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해라’는 식의 걱정 섞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조언들은 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라는 답답함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

습니다. 수개월 동안 여의도 주변을 1시간씩 서성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아뢰면 하나님이 나의 강함 되신다’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적인 힘(鬻)도 없고, 훌륭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처럼 학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승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뒤부터 저는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고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제 삶을 친히 인도하실 것이고, 만일 승진이 늦어진다면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놀랍게도 작년 말 갑작스레 제가 지점장으로 승진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사이동이 아닌 승진이었습니다. 평균 나이보다 3~4년 더 빨리 승진이 되었고, 더군다나 승진하기 힘든 자리에서 승진했다는 사실에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축하한다면, “어떻게 승진을 한 거니? 무슨 힘(鬻)이니?”라고 물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어서, 제가 교회를 다녀서, 제가 기도

해서 승진했어요. 승진하고 싶으면 교회 다니세요.”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상 의지할 곳 하나 없던 저에게 하나님은 저의 강함이 되어주셨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저의 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편한 곳에서 감사하며 안식하지 못하고 마음고생을 자처한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제 아내가 본사에서 고생하고 있는 저를 위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기도했었고, 제가 여의도에 발령받은 것은 아내의 기도 응답이었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저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대학에 못 들어갈까, 취업 못할까, 사업에 성공하지 못할까, 직장에서 승진 못할까 등등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크고 작은 생각들로 불안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마6:34)는 예수님 말씀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힘과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에게 베푸신 기적처럼 말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손민우 성도

천국에 가는 부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듯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눅19:2).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를 보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온다. 그리고 즐거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한 마디 아뢴다. 이 말로 인해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알리신다.

대체 삭개오는 무슨 말을 했기에 예수님이 감동하셨을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바로 이 말이다.

삭개오의 이 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내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 재산의 절반을 드린다는 것, 그리고 그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는 것 등이다. 록펠러는 부자가 된 후 55세부터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자선 사업에 썼다.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의 롤모델로 알려진 척 피니도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했다. 삭개오의 예화를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부자들의 행동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기에 충분하다.

부자들도 능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나누면 가능하다. 사실 그 모본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있을까.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된다. 부자로 살되 부자로 죽지 않으면 충분히 주님이 감동하시리라.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딤후6:17~19).

장명훈 집사

